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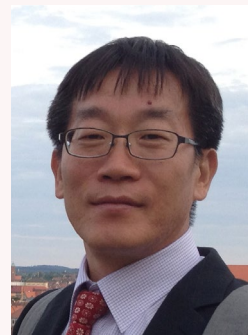
| 권두언 |

# 사회적 대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을 것

2019년 3월 11일(월) 06:20, 07:00로 예정되어 있던 제3차 본위원회 참석을 위해 이른 시간에 위원회에 출근하였다. 출근 내내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에 노심초사하였으나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다. 그런데 7시가 다 되도록 계층대표 3인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2차 본위원회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엄습하였다. 불행히도 우려는 현실이 됐다. 계층대표 3인이 결국 회의 시작 6분 전에 불참통보를 했기 때문이었다.

발단은 2019년 2월 19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문」(이하 「탄근합의」) 때문이었다. 탄력근로에 대한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극적 합의를 둘러싼 파장은 실로 엄청났다. 처리될 것 같았던 의제별위원회의 합의문은 3월 7일 대통령이 주재하려던 본위원회에 계층대표 3인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되었던 것이다.

이번 탄근합의 사태는 단순히 개편된 경사노위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적절성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노동정치 및 노사관계의 복잡하고도 중층적인 갈등 양상을 폭발적으로 드러냈다. 탄근합의를 둘러싸고 진보·노동진영의 맹렬한 비난이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심지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서로를 비난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보다 탄근을 확대하는 입법(안)을 예고하기도 했다. 탄근을 둘러싼 관련 당사자들 간 정치적 공방 외에 사실과 전혀 다른 각종 루머와 잘못된 보도도 난무했다. 위원회를 이끌었던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제자들로부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역



**이덕재**  
본지 편집위원장

사적 합의가 순식간에 야합으로 폄훼되면서 탄근을 둘러싼 지난 한 달 여 동안은 그야말로 '상징싸움'의 시기가 된 것이다.

필자는 일련의 상황을 사회적 대화의 한 가운데에서 지켜보면서 여러 사람이 그랬을 것처럼 무척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누구의 잘잘못을 넘어, 우리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척박한 구조적 환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어디서부터 신뢰의 기반을 쌓아 나갈 수 있을지 쉽게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언론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달리 사회적 대화에 대한 많은 지지를 확인하였던 점이다. 계층대표 3인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각계 관련 주체들과의 비공식적인 경로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지가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이 와중에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던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와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가 그간의 논의의 결실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2019.3.5)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합의문」(2019.2.11)을 각각 발표하였다. 탄근이 사회적으로 시끌시끌했지만, 위원회는 묵묵히 정상 가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이번 호에 이들 세 건의 합의문 특집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관점에서 소개하였다. 어찌면 이 세 합의문이 과거, 현재, 미래가 복잡하게 착종된 우리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 노사관계 및 노동정치의 복잡성을 역동적으로 드러낸 이번 시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번 호는 풍부한 내용들이 가득하다. 우선 세 가지 합의문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의미가 실려 있다. 합의문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주요경과, 합의문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중심으로 합의문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긴급대담>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인 노중기 교수(한신대), 임상훈 교수(한양대), 장지연 부원장(한국노동연구원)을 모시고 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기획좌담>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타결과 지역 확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역사적 산증인인 박병규 특별보좌관(광주광역시)을 비롯하여 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사회적대화 논단>에서는 사실 탄근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고용안정망의 역사에서 새로운 빛장을 열지도 모를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해 다루고 있다.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가 실업부조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들을 소개하고, 길현중 박사(한국노동연구원)는 실업부조의 전달체계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4일과 4월 5일 경사노위 주관 두 건의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하나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토론회」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개최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가 그것이었다. ‘건강보험’과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두 토론회의 논의 내용이 풍부하게 실려 있다.

이 외에도 2차 및 3차 본위원회에 대한 진행 경과, 택시-카풀 갈등의 사회적 대타협,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와의 인터뷰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탄근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상황들은 ILO 논의로 전선이 이동하면서 빠르게 국면 전환을 하고 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 사회적 대화는 최근의 어려움과 갈등을 반드시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가 격차와 불평등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희망의 ‘사다리’로서 제 모습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